

체코선교 제 98신

보고기간 2022. 5. 1 - 2023. 2. 28.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유럽 특히 동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지난 세기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엄청난 국가적 총체적 재앙을 충분히 경험하였기에 서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 밖 확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신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확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 전 유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역하는 체코형제복음교회는 200여 지역교회들이 2천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자신의 교회시설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의 우크라이나 난민 돌봄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1년 길어지면서 난민을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한 돌봄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난민 돌봄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체코 국가 차원에서도 4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체코국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이 먼저 자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체코 우선!"이란 목소리가 대중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국제관계 학자들의 입장에서 제 각각 분석과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서방은 자신의 입장에서 전쟁을 해석하고 선전을 하고 심지어 전쟁을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양차세계대전을 통해 러시아 엘리트들은 "러시아적 평화"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러시아 정교회는 앵글로색슨의 서구 기독교 자유주의의 부패에 저항하는 메시아적 사명의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러시아 정교회의 역할은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기독교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독일 고백교회의 등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정립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전황이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전쟁터 옆에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실존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선교

첫째, 체코형제복음교회의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정책

1. 저의 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CTS 등 한국교회와 기관의 지원은 직접 체코형제복음교회 총회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2. 체코형제복음교회 총회 우크라이나 지원 책임자와 총회 관계자들과 함께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3. 지원금은 지역교회들이 재정문제로 방치한 교회시설을 수리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정립하였습니다.
4. 지역교회가 자신의 시설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거주지로 제공을 하게 되면 그들을 실제적 삶과 영적 삶을 도울 수 있는 소위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난민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교회는 계속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수행할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지원금은 난민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인 거주지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지만 동시에 교회의 시설로 남게 됨으로써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난민들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헤르손 도시 예술학교 교장이 체코에 피난을 와서 체코형제복음교회 지역교회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남편, 자부, 손자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예술학교를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며 우크라이나 국내와 해외로 피난 중에 있는 5백명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예술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두려움과 고립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격려하고 연대하며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체코형제복음교회 서체코노회와 함께하는 “실험실” 선교프로젝트와 중앙유럽선교연구센터

중앙유럽선교연구센터의 모든 활동을 이곳 목회자들이 인계를 받고 회장으로 섬겼던 동역자 코르파 목사가 뇌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 중에 있고, 중앙유럽선교연구센터 이니셔티브로 조직된 서체코 “실험실” 선교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흐라스트 지역교회는 한화 1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모금을 통해 선교활동 공간을 건축하고 있고, 니르자니 개척교회 목사 칸토르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르제슈티체 지역교회는 교인 30명의 미자립 교회이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어느 큰 교회 보다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르제슈티체 지역교회 안 사트케 목사의 선교를 한국교회와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상호 교류를 통해 그의 활동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함께 공통의 선교적 에토스를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무신론적인 사회, 신뢰를 상실할 교회의 선교는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체코 교회의 경험

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럽과 극동아시아 대륙간의 크리스천의 길에 대한 대화” 프로젝트

프라하에서 2백키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텔츠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는 작업입니다. 함께 동역하던 은퇴 목사이신 에바 멜무코바 박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박사님은 떠나셨지만 “베리타스” 단체와 동역을 하며 18세기 관용의 시대 이전 즉 체코개혁신교도들의 지하교회 시대의 크리스천의 신앙을 한국교회에게 소개하고 그 반대로 한국교회의 신앙을 이들 역사에 관심있는 현재 체코개신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는 복음의 길을 찾아가는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책 출간계획

“형제단의 역사 – 모라비안 선교 연대기” 출간이 동연 출판사에 의해 3-4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역자 서문을 이곳에 옮겨 놓습니다. 이 책의 사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 가정에 한 부씩 기부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역자 서문

한국 개신교회들은 교회의 모범으로서 초대교회를 언급하듯이, 모라비안 선교를 개신교의 시작이며, 선교의 모델로 여기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들의 선교가 세계 선교에 끼친 영향과 배경은 물론 선교 정신과 선교 방법과 원리를 탐구하고 있다. 이처럼 모라비안 선교가 한국 기독교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그들의 신앙의 뿌리와 전체 선교적 유산을 하나로 연결한 거대한 숲을 전망할 수 있는 자료들은 한국 개신교회에게 그리 소개되지 않았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신앙의 뿌리는 15 세기 보헤미아 종교개혁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개신교회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그 역사 발전 과정조차도 매우 복잡한 보헤미아 종교개혁 전체를 파악하는데 역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국의 통치아래 있던 유럽 변방의 힘없는 소수 민족의 역사는 거대한 게르만 민족의 역사의 물결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보헤미아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보다 한 세기를 앞서 일어나 루터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지만, 역사책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으로 언급할 뿐이다. 모라비안 선교도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어간 “재건 형제단” 보다 친첸도르프 백작과 짝을 이루고, 그리고 톨스토이와 간디가 극찬하고 재세레파, 침례파, 아미쉬 공동체 운동, 퀘이커 공동체 운동, 그리고 현대의 마르틴 루터 킹, 만델라 등 수많은 경건주의와 평화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모라비안 선교 원리의 토대를 제공한 헬치츠키 보헤미아 종교개혁가의 사상 보다, 독일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선교와의 관련성이 더 크게 알려졌다.

이러한 부분을 늘 문제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역자에게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출간되었다. 모라비안들의 신앙의 뿌리는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어 체코 크리스천들도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저자의 저술 동기이기도 하였다. 모라비안들의 신앙선조들은 역사기록자를 "형제단"이라는 교회를 조직할 때부터 선출하여 공식화하였고, 교회 조직 이전에 당시 정통교회였던 로마교회 교구 주교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보낸 서신들과 짧은 글들이 현존하고 있고, 신앙의 박해를 피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독일 헤른후트와 미국 베들레헴에서 "모라비안"으로 살아가면서 기록한 문서들 그리고 "모라비안 교회"로 발전한 역사자료들을 저자는 모두 모아 "모라비안 역사"의 모습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저자는 "세계 모라비안 교회"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지역을 관장하는 "체코 관구"의 주교이다. 모라비안 교회의 "주교" 선출의 역사적 뿌리는 중세 로마교회의 사도직 계승의 전통인 교계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회의 역사는 주교의 신앙과 실천에 근거할 만큼 중요하다. 역사가 주교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은 한국독자들에게는 생소하나 모라비안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책에서 주교인 저자의 교회 사랑과 사명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모라비안 선교의 거대한 숲을 높은 전망대 위에서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비유하자면, 숙련된 요리사에 의해 조리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음식들로 차려진 멋진 상차림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자신들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저자는 지역과 기후대에 따라 생산된 소중한 식재료들을 산지에서 풍성하게 수집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스스로 마음껏 무궁무진한 신앙유산들을 탐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모라비안"의 신앙 뿌리인 "형제단"은 1457년에 세워졌다. 당시 "교회"라는 이름 대신 "단(Jednota, Unity, 團)"으로 정한 것은 신약성경의 교회 즉 에클레시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체코어 교회(시르케프 cirkev) 용어를 대치한 것이다. 이러한 비슷한 이유로 루터도 교회라는 용어 대신 공동체의 의미를 갖는 "게마인데(Gemeinde)"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형제단"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첫 출현이었다. "형제단"은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보다 한세기 앞선 보헤미아 종교개혁자 얀 후스(Jan Hus)와 후스파 전쟁으로 점철된 교회개혁 역사를 이어갔다.

모라비안 선교 동기와 발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 역사 뿌리는 한국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생소하기까지 하다. 그들의 후예들이 체코 사회에서는 전 국민의 0.3%에 불과한 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개신교의 90%를 차지하는 주류교회)이며, 일반시민들은 분파주의자들처럼 여길 정도로, 문자 그대로 사회 속에서 "디아스포라"같은 존재이지만, 그들의 역사 뿌리는 국내적으로 1차세계대전 직후 1918년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족정신을 형성시켰으며, 국외에서는 18세기에 이미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시대의 서막을 여는 해외선교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이 책의 출판은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체코 시민들에게 체코민족정신의 근저를 다시 일깨워 줌으로써 교회와 그 복음을 소개하는 일종의 전도 팜플렛이며, 해외 기독교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현대선교가 강조하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재숙고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과 그 전례를 다시 일깨워주는 안내서이다.

역자는 저자와 협의하여 한국 독자를 위해 책의 구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저자가 자신의 공식 교회 명칭인 "우니타스 프라트룸(Unitas Fratrum)" 즉 "세계 모라비안 교회"의 체코 관구 주교로서 자신의 관구 역사로 마무리한 마지막 5 장 대신에 헤른후트로 이주하지 않고 체코 영토 내에서 존재했던 형제단 개혁파들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체코 개혁교회 역사가 흐레이사에 의하면 헤른후트로 이주한 형제단 개혁파들은 약 3 만명이었으며, 망명을 하지 않고 체코 영토내에 생존했던 개혁파들은 약 7 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1781 년 합스부르크의 "관용의 칙령"에 의해 소위 "관용의 교회"로 존재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다시 돌아와 조상의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를 한 "모라비안" 일부들과 함께 1918 년 독립과 함께 "체코형제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들의 역사를 관용의 교회 역사 전문가 에바 멜무코바 박사가 정리한 내용을 제 5 장 부록으로 실었다.

이 책은 프로테스탄트 초기 해외선교를 탐구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역자는 이 책을 발판으로 한국 독자들이 관심에 따라 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역자주로 돕고, 글을 읽기에 어려움을 주지만 생소한 본래의 지명과 이름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공하여 구글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자신의 지역 또는 국가의 복음 전래과정을 알기원한다면, 이 책이 그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다. 이들의 선교 정보를 따라 뒤를 이어 많은 교단들과 자유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선교들이 확대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지명과 이름과 활동들을 확인하기 위해 모라비안 선교들을 추적하면서 관련된 수많은 선교 역사 연구물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활동중인 선교사, 선교를 준비하는 후보자, 선교를 계획하는 교회들,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심있는 선교지의 이전 선교 경험을 파악하는데, 이 책은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에게 모라비안 선교 전체를 조망하는 이 책을 저술하고 번역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에드발트 루츠키 주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한국 독자들에게 추천해주신 홍지훈 교회사 교수, 박보경 선교학 교수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널리 알려 유용하게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동역자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결정해주신 김영호 동연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종 실 목사 (예정통합 파송 체코 선교사)

재정자립형 선교플랫폼 노력

배달 전문으로 시작한 덕분에 작은 비스트로를 팬데믹 중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3 년 넘게 아내가 혼자서 주방일을 하며 하루 15 시간의 노동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작년 12 월 초에 장소를 멀지 않은 곳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할 장소에서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와인바를 인수해서 아들에게 맡겨 자신이 하던 일과 함께 이것을 현재 운영케 하고, 주방시설 수리가 끝나면 식당도 동시에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내의 수고로 알려지고 신뢰를 얻은 메뉴가

체코인들과 지역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시켰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 여년전에 피섹에서 3 년간 선교찾집 “벨리바”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당과 와인바를 함께 경영을 하는 것은 저희에게 낯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7 년후인 2030 년부터 국가로부터 완전 재정자립을 하게 되는 현재 동역 중인 체코형제복음교회(교단)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가 선교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기에 이 계획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체코인들에게 반응이 좋은 메뉴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교회를 도울 수 있고, 아니면 이 선교플랫폼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꿈 꾀합니다.

체코형제복음교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 월 12 일 공로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이곳 교회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더 많은 사진은 다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Předání medaile Jongsilu Leeovi \(Praha - sv. Martin ve zdi, prosinec 2022\) - Českobratrská církev evangelická \(smugmug.com\)](https://www.smugmug.com)

한국방문계획

팬데믹이 아직 한창인 제 작년에 저의 아버님 장례에 가까스로 참석을 하고, 작년 기일에 이곳 상황과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여, 금년 두번째 기일을 지내기 위해 아내와 함께 7월 6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 3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부부가 긴 해외생활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2023년 2월 22일 프라하에서 이 종 실 드립니다.